단국대학교 제16기 교수협의회

교협브리프

02 2021

죽전캠퍼스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천안캠퍼스 (330-7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자연과학 1관 105-1호 Tel. 041-550-1553

인 사 말 | 이임에 즈음하여.. | 김 선 욱 (교수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교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은 모든 회원님이 '언택트 뉴노멀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시느라 어느 해보다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임에 즈음하여 2년간 저의 재임 기간을 반추해 보니 교내·외 환경이 급변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공약했던 대학발전, 소통 강화, 교수조직 개선에 대한 소회를 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수협의회의 대내외적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협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학발전에 필수적이라 생각하여 대학 측과 많은 소통을 하였습니다. 교협은 COVID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인프라 지원, 연구 및 강의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대학에 요구해서 대학이 이 중 상당한 부분을 수용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제16기 교협은 교협 30주년 행사 실시, 화상 운영회의 개최, 비대면 임시총회 개최, 교수회 창립, 신임 최고경영진 선출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참여와 같이 많은 주요 업무들을 최초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30주년 행사는 2019년 교협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서 『단국대학교 교협 30년사』는 단국대학교의 역사에 소중히 보존될 것입니다. 비대면 총회 및 운영회의는 디지털시대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실험적으로 기획되었고, 이를 위해 교수조직의 규정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해 2020년에는 등반대회, 휴게실 운영, 학생 간식 사업 등의 일부 정기 업무가 취소된 것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16기 교협이 큰 노력으로 대학과 교수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자부합니다.

둘째로, 회원들과의 소통 부족은 아쉬움이 가장 컸던 부분입니다. 2019년는 큰 아쉬움 없이 교수님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았는데, 2020년에는 휴게실 폐쇄, 재택강의, 동호회 모임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소통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커피 세트를 지원하였는데 연구실 중심의 소규모 모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개인 면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소통해 주신 많은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 소통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교수노조에 대한 준비작업은 회기 중 가장 지난 했던 일이었습니다. 교협, 교수회, 교수노조에 관한 연구와 결정 과정, 정관 개정 등 어느 하나가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든 회의와 의결과정에서 회원님들이 교수회 설립에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의견을 주셨고, 이것은 교수회가

출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교수회 출발에 자문과 비판 등 많은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저는 불가피하게 마지막 1년 동안 일부 정기 업무를 취소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발전, 소통 강화, 교수조직 개선이라는 3대 공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1년은 저에게 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차기 교수회의 발전에 커다란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신임 이사장님과 신임 총장님을 중심으로 시너지가 일어나는 교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저의 재임 동안 교협을 성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1년 신축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 사 | 교협 브리프 발간을 축하합니다 | 장 호 성 (이사장)

교수님들의 평안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사장직에 취임하고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저의 간절한 기대와 달리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아 얼굴을 보고 덕담을 나눌 만남의 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소명 의식을 갖고 학교 일에 종사하였기에 항상 여러분을 존경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조한승 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신임 교수회 집행부가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24일 이사장직에 취임한 이래 대학 법인 내 사업체와 재단 업무 전반을 시찰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취임 당시 공언한 대로 "대학 법인이 대학의 연구, 교육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떻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학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재정 여력을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시에 대학 병원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경영효율을 극대화할 전산시스템의 통합이나 글로벌 자원의 유입과 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 법인, 대학, 그리고 법인 산하 사업체 등은 따로 분리되어 떨어진 기관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 진리와 봉사라는 대학 고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한마음, 한 몸으로 헌신해야 하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바로 교수님들입니다.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교수님들의 개혁 의지, 애교심, 그리고 제자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뛰어넘은 대학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총장 재임 시절이나 지금이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음을 잘 인식하고 있고, 결코 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님, 여러분도 교수회를 중심으로 항상 활발히 소통하시면서 대학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이번에 펴내는 교협 브리프가 이 같은 소통의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교수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 의 문	제16기 2020년도 전반기 교수협의회 건의 현황	교수협의회 사무국

분과별 건의 사항

기획/발전 위원회

1. 임금인상 (교재개발 연구비 수당 인상 요청)
 : 임금, 수당 현실화를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 죽전 어린이집 로드맵 건의

3. 예산편성 시 연구비 현실화 고려

인사/학사 위원회

1. 60세 이상 연구업적 미달 교원 연구형, 교육형 도입

2. 공공기관 수탁연구 과제 수주 시 연구업적 점수 인정 상향 요청

3. 실질적 수업 개선 및 수업 혁신 유도를 위한 강의평가의 개선 요청

4. 교내 BTA 수상 방식의 문제 개선 및 시상의 범위 확대 필요

연구 위원회

1. 교내 연구비 (대학연구비+연구장려금) 예산확대

2. IF 가중치 적용된 연구업적을 모든 제도에 일괄적용
 : 승진/승급/재임용/대학연구비/연구년/연구 장학생 선정 등

3. 연구업적 요구기준 완화
 : ① 인문계- 저서 인정 점수 상향
 ② 자연계- IF 가중치 확대 반영

4. 대학연구비 제도 개선
 : ① 대학연구비를 연구장려금으로 통합하여 100% 지급
 ② 장려금 기준 점수 완화 등 검토

후생복지 위원회

1. 단국대 앱 출석 체크 부분 수정
 : 단국대 앱을 통한 출석 체크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수정 조치가 필요

2. 영상 강의 촬영 시 필요한 기자재 실험 실습비로 구매
 :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수들이 영상 강의 촬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학과 차원에서 영상 강

의 촬영에 필요한 전문화된 촬영용 기자재 구입이 필요

기타 건의사항

1. 교수회 신설 요청
 - 교수회 설립 추진 여부 건이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되었음.
  : 16기 교수협의회 제3차 통합 운영위원 회의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
 - 교수회 신설을 위한 학칙 제정을 요청함.

건 의 문	제16기 2020년도 후반기 교수협의회 건의 현황	교수협의회 사무국

분과별 건의사항

기획/발전 위원회

1. 대학 건의사항:
 - 2020년 12월 초 예정 교수회장 및 감사 선거 업무 협조 요청
 - 교수회 신설에 따른 대학당국-교수회 사이의 복지협의체 운영 공식화

2. 교협 통합운영위 안건:
 -신설 교수회 정관 제정 및 총회 투표 방식 및 절차 확정
 -신설 교수회 회장/감사 선거 세칙 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신설 교수회 단과대별 운영위원 선출 관련 협조요청

인사/학사 위원회

1. 연구실적 대체 과제수주 실적 점수 인정 형평성 보완 요청
 - 현 연구실적 대체 과제수주 실적에 있어서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간접비 10만원당 1점, 자연공학계열 간접비 15만원당 1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이것은 다른 분야(산업체 수탁연구 과제수주(1건 1천만원당 75점, 특허등록 실적(국제특허 2000점/국내 특허90점), 기술이전 실적, 산한협력 교육실적(연간 60점까지 인정), 산학협력 봉사실적, 기타 실적)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인정 수준임

2. 강의평가 우수상(BTA) 수상 이외 ‘연구부분 우수상’, ‘산학협력 부분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의 실적 등에 대한 수상 필요
 - 교수 업적의 다양한 부분에 상금 등의 포상이 아니더라도 시상을 통하여 명예로움과 긍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음

3. 죽전 교육교수들의 개인 연구실 배정 필요(근무처우 개선)
 - 현재 천안은 교육교수들에게도 개인 연구실이 배정되고 있으나, 죽전의 경우는 2인 1실 사용

으로 연구 환경 조성에 한계 발생
- 형평성 문제 및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시정 필요

연구 위원회

1. 2019년도 축소된 연구장려금 및 대학연구비의 원상 회복

2. 교외연구비를 수주하신 교수님들의 처우 강화
- 산학실적의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 상향(현재 인문사회계열 간접비 10만원당 1점)
- 교외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실적의 연구장려금 100% 반영

3. 연구업적 요구기준 완화
- 인문계: 저서 인정범위 확대(중앙일보 평가 기준 적용)
- 자연계: IF 가중치 확대 반영(현재 최대 2.5배를 3배로)

후생복지 위원회

1. 온도 변화에 따른 낭방기 가동 유동성 필요
- 현재 낭방기 가동을 11월부터 가동 가능하게 제한을 두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오전과 저녁 시간에 강의실과 연구실이 춥다는 의견이 있음

2. 커피 서비스 재가동
- 학생들의 대면강의 시작으로 많은 교수들이 학교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커피서비스 재가동 필요

출판홍보 위원회

1. 제16기 교수협의회 16-2호 브리프 발간 예정
- 2021년 2월 제작 예정

2. 교수회 선거 공고
- 교협 전체 회원이 차기 교수회장 및 교수회 감사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해 공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메일, 문자 등)

기타 건의사항

1. 교재개발연구비 및 수당 인상확정

2. 2020년 가정행복수당(매년 5월지급) 인상확정
-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20년 지급자에 한하여 2021년 2월에 소급 적용하여 지급예정

기 고 문	정년 소감? 그것, 참 난감한 질문이네요.	김 평 호 (커뮤니케이션학부)

정년을 맞은 소감 원고 청탁을 받았다. 쉽게 답했는데 막상 쓰려니 글이 잘 나가질 않는다. 이유가 뭘까? 짚어보니 정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정년 이후에 무엇을 할까 하는 물음을 던져보긴 했지만, 답을 찾으려 애쓰지는 않았다. 지금도 대체로 그렇다. 왜 그럴까?

대략 이런 이유가 떠오른다. 1. 요즘 65세는 아직 젊은 나이다. 2. 몇 가지 할 일을 이미 생각해 놓았다. 3. 스스로든, 가까운 주변인이든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한편, 우리가 정년이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중요한 분기점임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생사의 기로쯤 되거나, 뭔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거나 하는 생각이 되려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반발심리도 없지 않다.

그런데도 요즘, 자신에게 종종 물어본다. 지나간 시간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 '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은 적지 아니 '후회스럽다'이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여러 사람이 내어준 귀한 기회들을 소중히 맞이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또 몇 가지 맘먹은 일이 있지만, 시작하기엔 늦은 건 아닐까, 그렇다고 하지 않기엔 또 너무 이른, 그런 것이 지금 나의 시간 아닐까 하는 염려도 지울 수 없다. 좋은 벗과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이 무엇인가 도모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이 있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착잡한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말할 나위 없이, 지나간 시간에 대해 자책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머뭇거리는 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잘못을 반복지 않고, 맘먹은 일을 제대로 하는 부지런함일 텐데, 사실 '산책자' 스타일로 사는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할 듯한 약간의 걱정을 지울 순 없다.

오래전 '파피용'이라는 영화를 보았었다. 주인공 '파피용'은 스스로 세운 상상의 법정에 자신을 소환한다. '네 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죄가 없소이다!' '너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를 저질렀다!' '무엇입니까?' '생을 탕진한 죄다!' '생을 탕진한 죄'라는 말에 파피용은 순순히 유죄를 인정한다. 법정은 그에게 죽음을 선고한다.

인생을 낭비한 것이 가장 악한 죄일까? 게다가 사형이라니……. 은유라 해도 그건 지나치다. 하지만 그걸 따지는 건 중요치 않다. 요는 짧은 생의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는 거다.

그러나 돌이켜보자. 삶이 어디 그리되던가.

기 고 문	내 인생의 가치, 알콩달콩	양 문 희 (경영공학과)

아침에 눈을 떴다. 살아 있으니 눈이 떠진 거다. 퇴임식이 끝난 다음 날이라서 생소한 감회가 문득 들었다. 아! 이젠 퇴직했구나! 삼십여 년이 주마등 같이 지나갔다.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

이 세상을 모르고 죽는 것보다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을 알고 죽자는 생각에서, 조교수 시절엔 "전공 지식"이 중요하다고, 부교수 시절엔 전공한 지식은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타전공에 대한 "지식확장과 교류"가 중요하다고, 정교수가 되면서 십여 년간은 지식확장과 교류보다는 "지식의 지식" 즉 "지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지혜의 지혜" 즉 "통섭적 가치"를 위하여 살았다. 잘못 살았을까?

오십 대 중반에 고교 동창인 철학과 교수와 술 한잔을 나누면서 내가 대뜸 물었다. 일평생 품어왔던 질문이었고 상대는 철학과 교수이니까 뭔가 건질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지?" 느닷없는 생뚱맞은 질문에 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알콩달콩!"

그 순간 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환희의 미소를 보냈다. "햐! 나도 그 가치를 생각했는데. 철학과 교수가 말하니, 이젠 나의 확고한 최고가치로 정해야겠어! 서로 다른 과로 시작을 했지만, 인생의 최고가치는 같았네! " 그 후로 나의 "통섭 가치의 근원"은 알콩달콩이 되었고, 그것의 근본을 찾기 시작하였다.

나라는 존재는 몸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맘이었다. 그 맘은 첫째 가치가 쾌락 추구가 아닌 몸과 맘의 고통 회피였다. 몸과 맘이 바로 알콩달콩의 근본이었다. 안 아프면 안 아프니까 쾌락 추구를 하였고 알콩달콩의 시작이었다. 나의 경우 쾌락 추구는 네 종류였다. 오감을 통한 감각적 쾌락은 강하였지만 순간적이었다. 학문의 증진이 가져다주는 지성적 쾌락은 약하였지만, 은근히 지속되었다. 학문을 세상에 실천하는 이념적 쾌락을 나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에 대한 자문 활동에서, 특히 교협 활동에서 얻을 수 있었고, 이 활동들에서 큰 기쁨과 효능감을 느꼈다. 감성적 쾌락은 교수들과의 교감과 관계를 통하여 즐길 수 있었다. 특히 동료 교수들과 밥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 삼매경에 빠질 때 즐거웠고 그것은 잔잔하지만 큰 가치 중 하나였다.

퇴직한 지금 몸을 위한 운동에 가치를 두면서, 동료들과의 모임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또한 나의 이념적 쾌락을 위하여 나와 같이 알콩달콩을 지향하는 강의 인공지능을 틈틈이 개발하고 있다. 물론 실패하겠지만 실패해도 좋다.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성공이 아니고, 알콩달콩이 가치의 근본이니까.

기 고 문	신임 교수로서의 감회, 인연의 소중함	권 진 옥 (국어국문학과)

내가 단국대학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1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까지 나는 서울 소재의 모 연구원에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실에서의 근무를 제의를 받고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적잖이 망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래도 여러 번 환승을 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의 부담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를 흔쾌히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학계에서 동양학연구원의 명망과 여타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연구 환경의 인프라 덕분이었다. 오랜 역사에 걸맞게 동양학을 선도하는 기관의 소속 연구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문사철(文史哲)의 종합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원의 인적, 물적 토대는 내가 동양학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내내 지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여러모로 불민한 내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내외의 강의를 맡고 번역서 및 학술서를 출간하는 등 연구와 교육 방면에서 업적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동양학연구원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보살핌을 받으며 단순히 소속 연구원이 아니라 식구(食口)로서 자의식이 자리 잡아 갈 때쯤, 지난해에 연구원의 자격이 아닌 교원으로서 단국대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고 가을 녘 결국 두 번째 인연을 맺게 되었다. 7년 전 가을 단국대학교와 처음 인연을 맺고 학교의 정문을 지날 때 캠퍼스를 품은 뒷산이 단풍으로 치장한 채 나를 환영하는 듯하였는데, 작년 두 번째 인연을 맺고서 정문을 지날 때는 그 뒷산과 단풍은 여전하건만 나는 제집인 마냥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뿐이었다. 이미 식구가, 단국인이 되었던 것이리라.

처음 교원으로서 보낸 한 학기는 그간의 나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자세를 고민하게 만든 값진 시간이었다. 교수자로서 학생들에 관한 관심과 소통, 연구자로서 장기적인 연구 계획의 설계, 교내 위원회의 일원으로 지니는 자부와 책무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단국인으로서 새로 거듭나는 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양학연구원에서의 첫 번째 인연이 나를 자주(自主)하고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면, 단국대학교에서 두 번째 인연은 구국(救國)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구국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의 자신이 있게끔 도와준 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제부터 또 단국대학교 안에서 크고 작은 세 번째, 네 번째 인연을 맺어갈 것이다. 지난날의 인연과 더불어 앞으로 켜켜이 쌓여갈 인연들을 위해 참된 마음으로 성실히 노력하여 보답하고자 한다.

기 고 문	신임 교수로서의 감회, 신약 개발의 꿈	최 고 은 (과학기술대학)

대학 시절 화학을 전공하며, 나의 꿈은 막연하게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제약회사 연구원이 되는 것이었다. 학부 1학년 시절 전공 세미나 시간에 한국얀센에서 오신 강연자의 신약 개발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신약 개발을 꼭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약물전달시스템 연구를 하는 연구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석사과정의 공부를 하면서, 운이 좋게도 대웅 제약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지도교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연구에 대해 배우면서 현실을 알게 되었다. 석사학위만을 가지고 취업을 하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박사 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것을 결심했다. 나는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될 때, 특허라는 결과물로 만들어질 때, 국제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그 결과들로 수상을 하게 될 때 등등 보람이 더욱 큰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수의 꿈을 키우며 연구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2020년 3월 1일자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과학기술대학 신임 교수가 되어,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지난 2월 신임 교원 연수를 받으며 가슴 벅차던 일이 엊그제 일만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신임 교수로서의 감회를 작성하는 것을 계기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작년은 COVID-19로 수업에서 학부 학생들을 만나기 어려웠다는 점이 너무 아쉽지만, 연구실에 과학기술대학 화학과 학부 3학년 학생들이 하나, 둘 찾아와 현재는 4명의 화학과 학부생들과 우리 대학에서의 연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내가 과학기술대학 소속이기는 하지만, 화학과 소속은 아닌지라 화학과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여러 선배 교수님과 동료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가끔은 어려운 일도 이겨내면서, 독립된 연구자로서의 시작을 하는 것 같다. 많은 분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2020년 1학기 동기 모임의 27분의 신임 교수님들이시다. 이 또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의 대선배 교수님들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계기로, 동기 교수님들과 때로는 모여서 때로는 그룹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 받으며 좋은 일은 서로 축하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우며, 서로 공동 연구도 하며,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임용 첫해를 보내면서, 이곳 단국대학교에서의 큰 계획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 나는 이화여대 박사 학위 과정이었던 4년간 벨기에에 본사를 둔 화학 회사인 솔베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 솔베이는 마리 퀴리와 같은 여성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나와 같은 연구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때부터 나의 목표가 된 것 같다, 마리 퀴리와 같은 과학자를 양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 말이다. 이제 나는 우리 대학에서 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 우리 학생들이 나와 함께 우리 대학과 함께 성장하며, 어디든 본인의 분야에서 제2의, 제 3의 마리 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과학자이자 스승이 되고 싶다.

기 고 문	傳統 遊牧民에서 DIGITAL NOMAD로	류 병 재 (아시아중동학부)

2020년은 COVID-19 때문에 개인 생활에서부터 대학강의,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에도 세상이 한번 뒤바뀐 적이 있다. 금수저로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부족들에게 버림받아 순식간에 흙수저가 된 테무친. 그러나 테무친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인류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칭기즈칸이 되었다.

유목민의 역사 특히 13~14세기 몽골 제국사를 연구하는 나의 눈에는 몽골 초원에서 태어나 세상을 바꾼 칭기즈칸과 2019년 12월 중국 농경지대에서부터 전파되어 세상을 바꾼 COVID-19는 초원지대와 농경지대라는 서로 다른 시작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사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칭기즈칸과 그 후예들에 의해 건설된 몽골 세계제국은 몽골제국 특유의 역참(驛站) 시스템을 건설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동양과 서양, 이동·유목민과 정착·농경민의 삶의 방식과 문화, 과학기술과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변용-발전을 끌어냈다. 그러나 COVID-19와 변이바이러스들은 바이러스 입자 표면 특유의 돌기를 활용해 인간에게 전파되어 연결되고 상호 감염시키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인간과 사회, 세계는 서로 접촉을 피하고 고립·단절시키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몽골제국의 역참제도는 당시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었던 말을 활용해 세계 각지에 건설된 역참을 '아날로그(analog)'적으로 연결하고 교류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COVID-19는 우리를 아날로그적인 연결과 교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세상의 변화를 촉발했다. 그 변화는 바로 '디지털(Digital)'을 통한 교류와 연결이다. 현재 우리는 일시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지만, 화상회의, 재택근무,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형태의 교류와 활동을 하면서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당시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몽골 세계제국도 지금의 COVID-19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13~14세기는 부족과 국가가 서로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던 시기였는데, 몽골 유목민들이 이것들을 '아날로그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의 '아날로그적 역참제도'의 교류 시스템은 지금의 디지털 혁명과도 같은 변화의 충격을 세상에 주었을 것이다.

'전통적 역참제도'와 '디지털 혁명'은 모두 교류를 통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강의 시간에 나는 이러한 점을 학생들에게 늘 강조한다. 몽골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전통 유목민'의 역사와 언어, 문화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미래의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와 교류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렇게 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책장'과 '현장'을 넘나들어야 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모두 능통한 '개방성·이동성·탈경계·초연결'로 무장한 "遊牧-NOMAD"가 되어야 한다고…….

기 고 문	코로나와 원격강의, 그리고 시행착오	이 해 균 (토목환경공학과)

텅 빈 학교 캠퍼스를 창문 밖으로 볼 때, 문득 피터 드러커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지금부터 30년 후에 커다란 대학 캠퍼스는 유물이 될 것이며, 대학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 말을 한 시점이 1997년이니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이 그의 예측을 앞당긴 것은 아닐까? 경영학자로서 비용과 효율을 고려한, 또한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는 드러커 교수의 예측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원격강의를 준비하는 필자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필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IMF와 구제금융’,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 이런 제목들로 현대사 교과서에 기술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우리 시대는 ‘코로나와 사회경제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마스크를 한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혹자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의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할 정도이니, 보통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 겪는 일이 많은 1년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며, 국가나 사회조직 그리고 개인에게 ‘시행착오’라는 단어로 규정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필자에게도 지난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에 대응하는 중에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해였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작년은 특히 그 의미가 부각이 되는 해였다. 학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필자는 원격강의는 길어야 3월 한 달 정도 하면 끝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기대할 만큼 낙관적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잘해 보려는 의욕에 충만하여, 카메라와 마이크, 전자펜을 구입하고, 고교생인 우리 아이와 소위 ‘일타 강사’의 동영상을 보고 어떻게 강의를 하면 멋있어 보일지 나름대로 연구도 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아침 9시 강의에서 카메라로 보이는 학생들은 침대를 벗어난 지 10분쯤 되어 보였다. 심지어 학생이 애완견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강의가 사람 이외의 포유류에는 어떻게 전달이 될지 걱정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필자는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강의 방식을 실시간 강의보다는 녹화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

학력고사 세대인 필자와는 달리 요즘 학생들은 각종 사교육과 현란한 인터넷 강의에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20세기 교육철학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10여 년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강의를 해왔다. 따라서 필자가 21세기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강의에 적응하려면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다. 더구나,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가’, ‘과제’ 등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도 고민거리이다. 필자가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원격강의가 전통적인 대면 강의보다는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탓에 과도하게 부업을 늘리거나, 본업이어야 할 전공 공부보다는 공무원/공기업 임용시험 등의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아마도, 절대평가로 인해서 강의를 이수하고 받는 평점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원격수업으로 교수와 학생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만 하다.

새해 2021년에도 시행착오가 계속되겠지만, 작년보다는 덜 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국대학교 구성원들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으고, 서로의 시행착오에 대한 경험도 공유했으면 한다.

활 동	제16기 교협 통합운영위원 회의 개최	교수협의회 사무국

1. 16기 교수협의회 3차 통합운영위원회의 실시

- 일시: 2020년 6월 25일(목) 16시
- 장소: 죽전캠퍼스 범정관 314호 대회의실
  천안캠퍼스 인문관 대회의실

- 주요 토의사항:

1) 교수회 설립 추진 여부 심의 안건 토의

- 교수협의회
  :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교내 공적 조직이 아닌 친목회 수준의 법적 지위

- 교수노조
  :교수의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과 광역노조 하위 지부 성격 가능성

- 교수회
  :교수노조보다 검증된 조직
  교수노조, 교수협의회보다 교수 권익 보호에 유리
  임시 조직이 아닌 학교 내 조직으로 속함
  교수회 회장 선출 시 직접 선거로 선출이 가능 (예 한양대)

2) 교수회 설립 추진 여부건 심의 및 승인

- 회의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

3) 교수협의회에서 교수회로 (구성원 [회원 및 모든 사항] 승계 여부 건 의결

- 회의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

2. 16기 교수협의회 4차 통합운영위원회의 실시

- 일시: 2020년 11월 2일(월) 16시 30분
- 장소: 죽전캠퍼스 범정관 314호 대회의실

- 주요 토의사항

1) 교수회 선거 공고
- 전자투표시스템 안내,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안내 등

2) 교협 정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만장일치)
- 내년 교수회 출범 시 필요한 세칙을 기존의 정관에서 수정, 보완하여, 이러한 진행 사항을 논의하고 투표를 진행

3) 임시총회 개최 안내
- 교협 정관 개정을 교협 전체 회원의 투표(구글 설문지)를 실시 전 안내

4) 분과별 신 안건 및 건의사항 수렴

5) 차기 운영위원 선출 안내

활 동	2020년 1학기 교협 활동 내용	교수협의회 사무국

1. 교내 미화원 설 연휴 맞이 선물 증정

- 죽전: 2020년 1월 20일 (월) 09시 30분, 미화반 사무실
  김선욱 회장, 조한승 부회장, 이기광 사무국장, 김태연 감사 참석
- 천안: 2020년 1월 21일 (화) 10시, 미화반 사무실
  김선욱 회장 참석

2. 신규임용 교원 축전발송

- 일시: 2020년 3월 3일 (화)
- 내용: 2020-1학기 신규임용 교원 임용에 대한 축전발송

3. 2020학년도 생애 첫 보직발령 교원 축하명패 전달

- 일시: 2020년 3월 10일 (화) 14시
- 장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 대상: 음악·예술대학 이영화 학장, 교무처 강정원 처장, 대외협력처 (현 학생처 처장) 서문석 처장, 대외협력처 노승완 처장(5월26일 추가 전달)
- 내용: 김선욱 회장, 조한승 부회장 직접 전달

4. 2020-1호 교협 브리프 배포

- 일시: 2020년 4월 23일 (목) ~ 5월 1일 (금)
- 장소: 죽전, 천안 각 캠퍼스
- 내용: 2020-1호 교협 브리프 전체 전임교원 전달

5. 교협 서신 1호, 2호, 3호, 4호 발송

- 일시: 교협서신 1호 - 2020년 4월 1일 (수)
  교협서신 2호 - 2020년 5월 19일 (화)
  교협서신 3호 - 2020년 9월 25일 (금)
  교협서신 4호 - 2020년 11월 3일 (화)
- 대상: 전체 전임교원 및 교협 회원 교원
-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교협 대응 서신
  스승의 날 선물 관련 서신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로 교협 회원 추석 선물 증정 관련 서신
  임시총회 개최 안내 건

6. 2020-1학기 신규임용 교원 축하 서신 및 선물 전달

- 일시: 2020년 4월 24일 (금)
- 장소: 죽전, 천안 각 캠퍼스(총 46명)
- 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오찬 취소로 축하 서신 및 선물 전달
  (탁상형 원목 시계 필통)

7. 2019-2학기 정년퇴임식

- 일시: 2020년 4월 29일 (수)
- 장소: 죽전캠퍼스 범정관 대회의실
- 내용: 정년퇴임 교원에 대한 축하 화환 및 선물 증정
  김선욱 회장, 조한승 부회장, 김태연 감사, 조상우 사무국장 참석

8. 스승의 날 기념 교수협의회 기념품 배포

- 일시: 2020년 5월 15일 (금)
- 장소: 죽전, 천안 각 캠퍼스
- 내용: 스승의 날 기념 교수협의회 기념품 배포
  (64KB USB 1인 2개- 총 904개 배포)

9. 2020학년도 1학기 정년퇴임식

- 일시: 2020년 8월 28일 (금)
- 장소: 죽전캠퍼스 범정관 505호
- 내용: 정년퇴임 교원에 대한 축하 화환 및 선물 전달
  김선욱 회장, 조상우 사무국장, 김병율 감사 참석

활 동	2020년 2학기 교협 활동 내용	교수협의회 사무국

1. 2020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 전임교원 축전 발송

- 일시: 2020년 9월 3일 (목)
- 내용: 신규임용 전임교원 축전 발송

2. 2020학년도 2학기 신규보직 교원 축하 선물 전달

- 일시: 2020년 7월 1일 (수) ~ 2020년 9월 18일 (금)

- 내용: 2020학년도 2학기 신규보직 발령 교원 명패 및 화환 전달
  교학부총장 장세원 교수, 스포츠과학대학장 이석준 교수, 치과대학장 이해형 교수, 입학처장 최창환교수, 대학원 교학처장 최수한 교수, 정보융합기술 창업대학원장 이은재 교수, 음악예술대학장 백영은 교수, 약학대학장 박소영 교수, 외국어대학장 김주성 교수

3. 교협회원 추석선물 배포

- 일시: 2020년 9월 23일 (수)
- 장소: 죽전, 천안 양 캠퍼스
- 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교협 행사 취소로 회원 전체 추석 선물 배포
  (드립커피 세트)

4. 신규임용 전임교원 환영오찬

- 일시: 2020년 9월 23일 (수) 죽전캠퍼스
  2020년 9월 24일 (목) 천안캠퍼스
- 장소: 그란데 식당 (죽전캠퍼스)
  송연 식당(천안캠퍼스)
- 내용: 신규임용 전임교원 환영 오찬

5. 임시총회 공고 및 실시

- 일시: 2020년 11월 2일 (월) ~ 2020년 11월 3일 (화)
- 장소: 죽전, 천안 양 캠퍼스

- 내용: 교협 정관 개정 관련 임시총회(구글 설문 참여) 공고 및 실시 (교협회원 총 901명 중 찬성 327명으로 인한 개정안 통과)

6. 분과활동 회의 지원

- 일시: 2020년 12월 7일 (월)
- 장소: 교학부총장실
- 내용: 교육교수의 전임교수 전환에 관련된 안건 논의 (김선욱 회장, 이기광 지회 사무국장 참석)

7. 교수회장 및 감사선거 실시

-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 2020년 12월 17일(목)
- 내용: 차기 교수회장 및 감사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선거 실시 및 당선자 공고 실시
- 결과: 총 투표율 68% 과반 투표 완료
  1) 회장: 조한승 교수 당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 죽전 감사: 강동승 교수 당선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천안 감사: 김정윤 교수 당선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8.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 실시

- 일시: 2021년 2월 1일 (월) 오전 11:00 ~ 11:40
- 내용: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들을 위한 눈 건강강좌 ' 백내장과 노안수술 ' 진행
- 인원: 의과대학 의학과 조경진 교수(운영위원), 자유교양대학 배개화 교수(지회 사무국장) 진행

9. 설 맞이 교내 미화원 선물 증정

- 일시: 2021년 2월 2일 (화) 오전 11:00 (천안캠퍼스)
  2021년 2월 3일 (수) 오전 11:30 (죽전캠퍼스)
- 장소: 각 캠퍼스 미화반 사무실
- 내용: 설 연휴를 맞이하여 미화원에게 감사의 선물 증정

1. 2020년 신년하례·시무식

- 일시: 2020년 1월 2일 (목)
- 내용: 2020년 신년하례 및 시무식 참석 (김선욱 회장 참석)

2. 개교 73주년 기념식 및 설립자 합동 추모식

- 일시: 2020년 11월 2일 (월)
- 내용: 개교기념식 행사 및 설립자 합동 추모식 참석 (김선욱 회장 참석)

3. 단국역사관 건립후원기금 기부자 명판 제막식

- 일시: 2020년 11월 2일 (월)
- 내용: 단국 역사관 제막식 행사 참석 (김선욱 회장 참석)

4. 이사장 이임식 및 취임식

- 일시: 2020년 12월 28일 (월)
- 내용: 이사장 이, 취임식 (김선욱 회장, 조한승 부회장 참석)

5. 대학 평의원회 회의 주관

- 일시: 제1차 2020.03.10.
  제2차 2020.04.17.
  제3차 2020.06.04.
  제4차 2020.07.15.
  제5차 2020.10.27.
  제6차 2020.11.02.
  제7차 2021.01.13.
- 내용: 회계 결산 자문, 학칙 개정 심의, 대학 교육편제 조정안 자문 등.

활 동	교수회장 및 감사 선거 당선의 변	교수협의회 사무국

조한승 (회장 당선자, 정치외교학과)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과분하게도 저에게 교수회 회장직을 맡겨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협 브리프에 글을 실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교수협의회 김선욱 회장님과 편집위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학령인구 급감과 원격수업 일상화와 같은 대학교육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대학은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총장 선출과 경영진의 세대교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민족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에 발맞추어 교수 조직도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복지증진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교수회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의견이 대학의 의사결정에 더 잘 반영되고, 합리적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수회 출범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수협의회의 30여 년 역사와 전통은 신설 교수회의 토대이며 자산이기에 앞으로도 교협이 추구해온 섬김, 소통, 참여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정과 뜻을 모아 우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실이 교수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수회를 이끌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교수님들도 연구와 교육에서 더 큰 성과를 얻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승 (죽전 감사 당선자, 수학교육과)

존경하는 교수님께,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과분한 성원으로 교수회 감사직을 맡겨주신 교수님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수고하여 주신 제16기 교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감사 말씀의 글을 교수님들께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선욱 회장님과 편집위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교수협의회"에서 "교수회"로 교수조직의 변화 및 뜻밖의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대학교육 현장의 위기 등의 상황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불안감과 위기감에, 저는 막상 교수회 감사에 당선되고 나니 교수회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엄습해옴을 느낍니다.

앞으로 전임 교수협의회의 경륜과 지혜, 그리고 현 교수회 회장 및 임원진과의 소통을 통하여 김정윤 감사님과 함께 단국대학교 교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섬김, 소통, 참여의 교수회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윤 (천안 감사 당선자, 물리학과)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새로이 출범하는 교수회의 중책인 감사의 직책을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수고하신 제16기 교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를 주신 김선욱 회장님과 편집위원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와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협의회에서 교수회로 거듭나는 변화의 시기에 제1회 교수회 감사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에 두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난 6년간의 운영위원, 사무국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회 회장님, 임원진 및 교수님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섬김, 소통, 참여의 교수회의 감사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 단 | 제16기 교수협의회 임원 및 운영위원 | 교수협의회 사무국

[임 원]

구 분	소속 대학 / 학과		성 명	연 락 처			연 구 실
				Office	Mobile	e-mail (@dankook.ac.kr)	
회장	과학기술대학	경영공학과	김선욱	3573	010-8808-0605	kimsunuk	보건간호관 617
부회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한승	3318	010-6348-4610	hanscho	사회과학관 408
사무국장	자유교양대학	교양학부	조상우	1569	010-3775-2993	casskiss	인문과학관 227
지회사무국장	자유교양대학	교양학부	배개화	1579	010-8555-7250	gaenarie	인문과학관 229
	경영경제대학	경영학과	이기광	3421	010-6212-2171	kiklee	상경관 520
감사	보건복지대학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태연	3614	010-7137-6325	tykim	사회과학관 136
	음악·예술대학	도예과	김병율	3095	010-7339-4740	yeoul4740	미술관 305

[운영위원 - 죽전캠퍼스] - 24명 [운영위원 - 천안캠퍼스] - 24명

구 분	소속 대학 / 학과		성 명
죽전캠퍼스 운영위원 (24명)	문과대학	영미인문학과	위혜경
		국어국문학과	김옥성
	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한석원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김난희
		음악학부	이수진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오세종
		컴퓨터공학과	박경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한승
		커뮤니케이션학부	전종우
	법과대학	법학과	최호진
		법학과	박영준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조홍종
		경영학부	이기광
		경영학부	천성용
		경영학부	문보영
	공과대학	건축학부	홍경구
		화학공학과	장수환
		전자전기공학부	이지행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교육학과	이영희
		교육학과	박명선
		행정법무대학원	이환수
	자유교양대학	교양학부	서응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최형준
		과학교육과	임은주

구 분	소속 대학 / 학과		성 명
천안캠퍼스 운영위원 (24명)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김현주
		아시아중동학부	송상현
	보건복지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이표규
		심리치료학과	배성만
		공공정책학과	임동완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윤보은
		신소재공학과	문태호
		식품공학과	이형재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김현범
	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
		미술학부	조희경
	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강현욱
	간호대학	간호학과	오세은
	약학대학	약학과	이충현
	자유교양대학	교양학부	조상우
		교양학부 (여교협 회장 대행)	배개화
	의과대학	의학과	조경진
		의학과	김유미
		의학과	민준원
	치과대학	치의학과	조자원
		치의학과	이준석
		치의학과	김종빈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조정희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오세행

연 락 처 | 제16기 교수협의회 사무국

사무국장 : 조상우 교수 (천안캠퍼스: casskiss@dankook.ac.kr), (041)550-1569, 010-3775-2993

죽전조교 : 김가람 조교 (죽전캠퍼스: 12200960@dankook.ac.kr), (031)8005-2894, 010-4498-1357

천안조교 : 최광웅 조교 (천안캠퍼스: 12191001@dankook.ac.kr), (041)550-1553, 010-6551-4825

MEMO

교협브리프는 우리대학 교수님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작성.배포되고 있습니다. 학내 소통의 공간 형성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교수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메일 혹은 방문 환영합니다
e-mail : prof@dankook.ac.kr 익명/기명 원고를 작성하여 본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COUNCIL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교협 신 로고디자인-마상영, 제16기 교수협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손 형태로 상징화함
교협브리프16-2 발행일 2021년 2월 00일 발행인-김선욱, 인쇄-조상우, 편집-배개화, 디자인-정훈동, 행정-최광웅·김가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자연과학 1관 105-1호 Tel 041-550-1553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